

'DURACELL, MRS. TANAKA SAID'

FERDINANDO FREGA



DURACELL, TANAKA 부인이 말했다

일본식 죽음

The Art of Attraction · 12

그날 나는 밀라노 본사에 있었다. 마케팅 사람들에게 냄새를 맡게 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설명해야 했다. 아무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그루밍 제품을 팔았고 식품과는 어떤 연관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이던 것이 현실에서는 다른 차원과 마주쳤고, 그곳에서 환상은 누아르와 결혼해 순식간에 진실이 되었다.

생각은 이랬다. 고객에게 어떤 제품의 진열 트레이 냄새를 맡아 보라고 하면, 그는 압축된 판지 냄새밖에 안 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브랜드 하나만으로는 그 뒤에 있는 성공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하지만 배경에서 길을 잃지는 말자.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핫도그를 먹고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바로 수위실 옆 출구에서 막 나서려던 나의 CEO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불러 말했다. "Frega, 나랑 같이 가세. 마케팅 사람들하고 노는 건 그만두게.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자네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 못 할 거야. 따라오게, 공항에 Gillette 동료를 맞으러 가는 길이야. 일본의 새 CEO, TANAKA 부인이지."

“두고 보게, 유쾌한 여자고 칼라브리아 사람을 아주 좋아해. 오래전에 자네 고향 쪽 출신 남자 친구가 있었다더군. 지난번 보스턴 이사회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지만 Dottore, 저는 일본어를 못 합니다. 그쪽에서 여자 친구를 사귀는 적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자, 차에 타게, 자네가 운전해. 밀라노 Malpensa 공항으로 가면서 설명해 주지. 자네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자네가 나와 함께 출장 중이라고 비서더러 말하라고 하겠네.”

우리 앞에는 50분쯤의 길이 있었고, 그는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가족, 아이들, 그가 잘 아는 나의 아버지 소식. 일 얘기는 전혀 없었다. 공항에 닿기 전 마지막 10분이 되어서야 그는 누가 도착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를 알려 주었다.

Tanaka 부인은 최근 상을 당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고, 이번이 조의를 표하기 좋은 기회였다. 행간에서 드러난 것은, 그녀가 Duracell의 글로벌 이사회 출신이며 불과 몇 분기 전에 Gillette에서 이 새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다. 적어도 나의 위도에서는.

나는 그녀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중간 키에, 우아하고, 미소를 띤 모습이었다. 나의 CEO는 양 볼에 입을 맞추는 의례적인 인사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나는 그런 친밀함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데 그쳤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먼저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했고, 그다음 바의 작은 테이블 하나에 둘러 한잔하며 몇 마디 나누자고 했다.

그녀는 곧 돌아왔다. 산뜻하고, 아까보다 더 향기로웠다. 나의 CEO는 그녀를 향해 조의를 표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죽음은 온 세상 어디서나 같아요. 하지만 죽음을 바라보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의 철학은, 동양 사람에게는 서양의 것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요.” 무슨 뜻이었을까?

“당신들은 그를 기억할 때 울어요.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할 때 미소 지어요.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한 일 속에서 살아 있으니까요.”

그것은 새로운 개념이었고 동시에 어려운 개념이었다. 나는 중심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소화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완벽한 칼라브리아 사투리로 말했다. “Capisci sti.”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두 사람은 10분쯤 함께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녀의 말을 계속 곱씹었다. 돌아가는 길에 내 걸을 지나며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갔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그녀를 향해 소리쳐 불렀다.

“Tanaka 부인, capiscia aaaa.”

그녀는 미소 짓고 멀어져 갔다.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50분. CEO는 말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운전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일본 동료가 그러더군. 자네는 유쾌한 사람이지만 조심하라고.” 왜요?

“자네 같은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 일하지도 않고, 회사를 경영하지도 않는다더군.” 그럼 뭘 하는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Capisci sti.”

Ferdinando